

# 부영그룹, EBS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4년 연속 기부

## 이중근 회장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의 마중물 되길”

우리 사회에 총 1조 2천억 원을 기부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사회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올해도 E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3억 6천만 원을 기부하며 4년 연속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총 누적 기부액은 27억 2천만 원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8일(화) 오후 2시, 부영그룹 사옥에서 김유열 EBS 사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3억 6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액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난치성 환우 등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손길이 나비효과로 번져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이중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올해도 부영그룹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EBS는 전달받은 기금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되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순환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의 후원은 장애인, 난치성 환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약 160가구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고, 새 집을 구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특히 공군 장교와 부사관으로 만난 ‘공군 부부’의 아내는 다섯째를 출산한 지 나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아내가 극적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유열 EBS 사장

로 의식을 되찾고 강한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됐다.

또한 간암 말기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았던 민정(16세) 양은 후원금 덕분에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고 스포츠 트레너스 프로선수의 꿈을 이룬 사례도

있었다.

부영그룹은 교육·문화시설 기증, 장학사업, 재난구호, 역사 알리기 등 국내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부영그룹이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이승원 기자



## 전남지방우정청, 섬마을 소외이웃에 두번째 나눔 실천

### 완도에 이어 여수 거문도 소외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직무대리 김기홍)은 지난 11월과 12월 이틀에 걸쳐 여수 거문도 지역의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달 완도 섬지역 3곳에 후원물품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나눔 활동으로, 도서지역의 접근성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획되었다. 이날 전남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은 여수 거문도에 방문하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섬마을 소외이웃에 이불 및 식료품,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두 차례에 걸친 나눔 활동을 통해 섬지역 소외이웃 총 20가구에 약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김기홍 청장 직무대리는 “작은 정성이지만 섬지역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 “이웃의 변신은 계속된다” 2회차 작천살롱 완료

### 강진군 작천면, 염색과 커트로 전하는 정 주민만족도 ‘만점’

강진군 작천면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정숙, 민간위원장 정항체)가 지난 10일 작천면사무소 내 공공미용실 ‘작천살롱’에서 2회차 이·미용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염색 봉사는 작천면 새마을부녀회가 참여했다. 미용 기술을 가진 청년회 회원이 커트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고 세대 간 교류와 나눔이 어우러진 따뜻한 현장을 만들었다.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돈하고 염색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면사무소가 ‘작은 미용실 겸 사랑방’으로 변했다.

한 어르신은 “마을에 미용실이 없어 늘 불편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염색과 커트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고맙다”며 “봉사자들이 덕분에 마음까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항체 민간위원장은 “작천살롱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정숙 공공위원장은 “추운 계절을 앞



두고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변신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작천살롱이 단순한 이·미용 서비스를 넘어 이웃 간 정을 이어주는 마을의 작은 행복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작천살롱’은 미용시설이 없는 작천면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성된 공공미용

실로,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으로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1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년회와 여성단체 등이 봉사 인력을 분담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 ‘2025년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출판기념회 개회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4일 곡성군민회관에서,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22명을 선정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구술집으로 엮은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9차)” 발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 구술집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발간하였으며, 올해로 9번째 해를 맞이했다. 9년간 책을 발간하기까지 곡성군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책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출판기념행사도 함께 추진하였다.

출판기념행사는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세대 간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군수, 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하여 책 출판에 참여한 주인공 어르신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플루티스트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술집 제작 배경과 경과보고, 참여 어르신 영상상영과 인터뷰, 구술집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 입면에 거주하는 이점례(101세) 어르신은 “백발이 성성하니 오래 살다보니 이런 자리에도 와보고 고맙다. 오래 살아서 나라 힘든 일 시켜서 미안하다”라며 장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단순한 회고가 아닌 한 시대를 살아온 삶의 흔적이며, 시련을 이겨낸 의지와 가족을 향한 사랑, 고향 곡성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기록이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군은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도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다음 세대에 삶의 방향과 용기를 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술집 출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파크골프교실 운영

보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승진)은 장애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 ‘장애인파크골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특히 신체적 부담이 적고 집중력과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복지관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

다.

이번 파크골프교실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지도자의 맞춤형 지도를 통해 참가자 개개인의 신체특성과 능력에 맞춘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되며, 기본 자세 습득부터 퍼팅 기술, 경기 운영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참여자 간 친목 도모와 자신감 향상을 위해 앞으로 정기교류전 및 친선대



회도 참여할 방침이다. 복지관 김승진 관장은 “장애인 파크골프교실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윤기 기자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